

## 미주 한인인의 날 120주년 “더 위대한 꿈 향해 도약하자”

미주한인재단LA(회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한 제120주년 미주한인의날 및 제20회 선포 축하식이 지난 13일, LA 다운타운에 소재한 밀레니엄빌드모어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창엽 회장과 박수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디 추 연방 하원의원,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무장관, 릭 카루소 LA 시장 후보, 한인사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미주 한인인인 12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남가주 지역 다민지도자들은 한인사회와의 협력과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미주한인의 날은 1903년 1월 13일 최초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첫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미주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됐다. 인천에서 출발한 한국인 첫 이민자들은 1902년 12월 22일 호놀룰루 입항을 허가 받아, 이듬해인 1903년 1월 13일 하와이에 발을 내디뎠다.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005년 12월 미국 하원과 상원이 ‘미주한인의 날 지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전국 각 주에서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13일 밀레니엄빌드모어 호텔에서 열린 120주년 미주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이병만 회장이 결의안을 전달받고 있다. ©기독일보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행사의 미주지역 공동회장을 맡은 김영길 AKUS 한미연합회 총회장은 “미주한인 이민 120주년을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주한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함께 꿈꾸는 자리”라며 “이민 선배로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자”고 권면했다.

120주년 미주 한인의 날 대회를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제63대 법무부 장관,

제44대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까지 그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노력 못지않게 한미동맹과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로 더욱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도록 미주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완 LA총영사는 “선조들의 땀과 노력, 후손들을 위한 희생은 오늘날 한인 사회의

성장과 함께 한인 2세, 3세들이 미 주류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주춧돌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인사회는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미국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날 행사 2부 순서로는 파바 월드 맨싱팀의 화려한 부채춤 공연, 뮤지컬 도산 안창호에서 필립 안 역할을 맡았던 다니엘 김과 파페라 가수 최원현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으며, 소노로우스 싱어즈와 임청하 교수(백석대)의 특별 무대도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또 탈북자 흥예원 씨의 ‘고향의 봄’ 아코디언 연주도 박수 갈채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미주한인재단LA 이병만 회장은 “120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의 선조들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가지고 미국 각 지역에서 한인사회를 형성했고, 220만 명의 미주 한인들은 뛰어난 재능과 우수한 역량으로 미국 사회를 유지하는 한 축이 되었다”며 “미주 한인들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 주류 사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미국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커뮤니티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동성애 기발. ©Unsplash

미국 텍사스주에서 초·중등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의 재러드 패터슨 하원의원은 10일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 美 텍사스주, 초·중등학교 내 ‘동성애 교육 금지’ 추진

법안(HB1155)을 발의했다.

이는 플로리다주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일명 ‘동성애 언급 금지법’(Don’t say gay)과 유사한 것으로, 앞서 공화당 스티브 토스(Steve Toth)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631)에서 기한만 5학년에서 8학년까지 연장한 것이다. 플로리다에선 이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제한했었다.

패터슨 의원은 “연령에 적합하지 않거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LGBT에 관한 모든 수업을 금지하려 한다”며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는 교실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의 목적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

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텍사스의 HB 631, HB 1155 법안 모두 부모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정신적·정서적 또는 신체적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구가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또 2024년을 앞두고 텍사스 교육청이 학교 상담사와 교사를 위한 모범 사례를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플로리다 법안과 비슷하게, 두 법안 모두 동성애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HB 631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 모든 학

생들에게 웰빙에 관한 설문 또는 건강 검진에 관한 양식을 관리하는 모든 학교에서 양식의 사본을 제공하고, 사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HB 1155는 더 나아가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모의 관여를 막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나 기타 진보 및 동성애 단체들은 플로리다법과 달리 텍사스 버전의 법안이 잠재적으로 더 해롭다고 비난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유튜브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KOREAN CHURCH  
한기홍 담임목사

**기독일보 창립 19주년을 축하합니다!**

행복한 교회 (마11:28)  
상급 받게 하는 교회 (계22:12)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 (마24:14)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의 말씀 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08:00(주 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벌드 오후 12:00, 9:00(주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TBO Play CH 25 CHTV크리스천에벌드 오후 04:30(화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후 08:00(화요일)  
CBSTV CH 20.12 오전 09:0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전 06:00(목요일)  
CTS TV 미국 CH 2092(Directv) 오전 09:00(금요일)  
Radio Seoul AM 1650 오전 05:30(금요일)  
미주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TV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Radio Seoul AM 1650 오전 06:30(토요일)

그외 인터넷 방송  
KCMUSA.org(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  
SBMSmart Broad Casting Network)  
SON Ministry(GMAN Radio)  
KCBN (미주기독교방송국)  
GKCTV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 OC 전도연합회, 선교사 자녀에 총 2만5천달러 전달

## 2023년 신년하례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이사장 윤우경)는 지난 14일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2023년 신년하례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주관하고, OC 기독교교회협의회, OC장로협의회, OC 목사회, OC 여성목사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각 교회에서 추천한 선교사 자녀 35명과 지원자 15명 등 총 50명에게 각각 500달러씩 총 2만5천 달러가 전달됐다.

장학금 재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골프토너먼트 행사를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 장학생으로는 페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인도, 태국, 우간다, 브라질, 베트남, 네팔,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중국, 터키, 말리, 키르기스스탄, 이스라엘,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요르단 등 해외 13개국의 선교사 자녀들이 선발됐다. 선교사 자녀 장학생은 해외 한인 선교사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23년 신년하례 및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기독교일보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 및 대학·대학원생으로 현지 또는 한국, 미국에서 학업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이날 신년하례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민 김 부이사장이 대표기도한 후 한기홍 목사가 “가장 값진 투자를 하라”(눅 5:1-11)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

님께 드리는 투자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영원한 투자가 된다”며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오래 역사와 전통을 가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 목사는 “선교사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라며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설교 후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 OC 지역 사회와 교회, 목회자, 해외선교사를 위해, 전도회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윤우경 이사장의 사회로 심상은 목사가 축사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

선교사 자녀 장학생을 대표로 심찬영 군(탈북신학교 재학)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기도에 감사드립니다”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오는 4월 상반기 말씀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5월에는 목회자블레싱, 8월에는 제4차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위한 골프대회, 광복절 연합예배, 10월에는 교회 연합성가제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 남가주 장신동문회 2023 신년하례회 개최



남가주 장신동문회 2023 신년하례회

### 신임 회장에 김신 목사 부회장에 이정현 목사 선임

장로회신학대학교 남가주 동문회는 지난 16일, 남가주 치노 힐스에 소재한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신임위원을 선출했다.

2023년 임원단으로 회장에 김신 목사(주향교회)가, 부회장에 이정현 목사(만남의교회)가, 총무에 정달성 목사(리뉴얼세움교회)가, 서기에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회계에 장덕재 목사(예수사랑비전교회)가 선임됐다. 남가주 장신 동문과 가족들 약 80여명이 모인 신년하례회는 서로간의 안부와 신년

인사를 나누고 선한목자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임원회에서 마련한 웃놀이하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년예배는 고태형 목사의 인도로 이영진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와 감미영 사모의 특별찬양에 이어 서정운 목사(장신대 명예총장)가 “에벤에셀”(삼상 7: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팬데믹 이후 첫 모임을 가진 남가주 장신동문회는 오는 6월 ‘동문 가족 수양회’를 통해 동문 친교의 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가주 장신동문회에 관련된 문의는 김신 목사(goldenfaith@gmail.com)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회복, 북음 통일길 모색”

### 1월 31일(화) 제5기 미주 온라인 북한선교학교 개강

제5기 미주 온라인 북한선교학교가 오는 1월 31일(화) 개강한다.

통일소망선교회(대표 이빌립 목사)가 주최하고 노보놀스코리아(대표 서예레미야 선교사)가 주관하는 제5기 미주 온라인 북한선교학교는 4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주간에 걸쳐 북한선교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북한 선교학교는 북한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선교의 사역과 방향을 나누고, 북한 선교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다.

강의 주제는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북음통일을 향한 부르심 △북한의 주체사상과 기독교 비교 △북한의 종교정책과 북한 교회의 이해 △코로나 이후 북한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국 평강공주 및 탈북자녀 긍휼사역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과 우리의 기도 △탈북 청소년 통일 세대로 키우기 △미주에서 할 수 있는 북한 선교 사역의 의의 △북한 선교와 중보기도 사역 등으로 북한 선교 전문 사역자와 교수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빌립 목사는 “북한은 두 개의 사회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정권이고, 다른 하나는 어둠의 영에 갇혀 고통 받고 신음하는 북한의 주민들”이라며 “북한 교회 재건과 북음화를 위한 북한 선교의 실제적



지난해 통일소망선교회가 개최한 LA지역 북한선교 북음 컨퍼런스 ©기독교일보

방법과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예레미야 선교사는 “탈북민 신학생과 탈북민 교회 지원, 탈북자 구출과 신앙 교육, 탈북민 선교와 북한 내 성경 반입, 지하교회 구축 등 북음통일을 앞당기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들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의는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 영상을 시청 후, 매주 조별 줌 미팅으로 모여 강의 나눔 및 기도 시간으로 이뤄진다. 수강생들은 현장 선교사와 줌으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며, 미주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에게는 탈북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은 1월 29일(주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에 줌으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70달러(목회자, 사모, 신학생은 60달러)이며 등록 문의는 데이빗 김 목사 이메일 novonkorea@gmail.com 또는 전화 314-625-0404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1면 “미주 한인의 날 120주년...” 이어]

#### ◆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도서 “길 위에 길을 내다” 출간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 이민 120주년에 맞춰 출간된 “길 위에 길을 내다” 발간 축하 행사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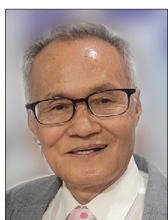
기념도서의 편집을 담당한 미주장신대 이

상명 총장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타계한 인물 가운데 미주 한인 사회와 한국을 넘어 미국과 세계에 공헌한 한인 16인을 선별해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고, 한인이민사를 정리하고자 했다”라며 “한민족의 위상을 더 높여 준 16인의 생애를 돌아보며 한인 사회의 미래를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우리 후세대에 널리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남가주한인목사회·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설교: 신승훈 목사 남가주교계연합 대표회장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김정환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박정희 목사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일시** : 2023년 1월 21일(토) 오전 10:30

**장소** :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시무)  
1801 South Grand Ave. LA, CA 90015

**문의** : (213)820-8855(총무 김효철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SCK Women's Ministers Association

# “장애인들이 더 큰 소망과 비전 갖게 되길 소망해요”

### 남가주밀알선교단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관한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지난 16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거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22명(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포함)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3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102명에게 12만8천 달러의 장학기금이 전달됐다. 장학기금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2022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재원으로 마련됐다.

이종희 목사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밀알의 밤을 적극 성원해주셔서, 풍성한 장학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후원자님들과 교회, 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많은 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102명의 장애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하고, 보다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남가주밀알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밀알 스토리’ 영상 상영과 양희원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 OC교협 회장)가 “새 역사에 도전하라!”(민 14: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심상은 목사는 “밀알 장학생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다. 비록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신다”며 “가나안 정탐에 용감히 나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자”고 격려했다.



감사한인교회에서 거행된 ‘2023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생 정요한 군의 특별 찬양과 이역희 남가주밀알 이사장의 감사 말씀에 이어 이은철 UMC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

에 도움이 되도록 2001년부터 매년 신청자들 중 일부를 선발해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1월 14일, 제1회 밀알장학기금 수여식이 거행됐으며, 2023년까지 누적 총 지급액은 2백87만6천 200달러에 달한다. 김동욱 기자

## ‘TEE 세미나’ 지역교회에 최적화된 양육 훈련 도구

### 1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애너하임 아름다운교회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멈추었을 때, 그래도 계속되었던 사역을 꼽으라면 바로 TEE 사역이었다. 학습교재가 선생님 역할을 하므로 이 과정을 배우는 교인들은 집에서 배움이 지속될 수 있었으며 온라인으로 만나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교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가진 지역교회에 최적화하여 만들어진 도구가 바로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기 때문이다.

TEE를 지역교회에 도입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TEE 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1월 30일(월)부터 31일(화)까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소재한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에서 열린다.

TEE 사역 단체인 KTEE 미니스트리 (디렉터 한순진목사)가 주최하는 이 세미나는 지역교회가 어렵게 여겨 왔던 양육과 훈련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

나 강사로는 한순진 목사와, 코디네이터 임홍일목사, 뉴욕 네트워크 대표인 송인규 목사가 나선다. 등록비는 120달러.

TEE 과정들은 전도 단계에서부터 새신자와 기초 단계, 사역자와 일꾼을 육성하는 단계, 그리고 심화 단계 등 여러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3,500여 교회, 미주 4백여 교회가 이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목회자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소그룹’이다. 미래 사역은 친교 소그룹과 훈련 소그룹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데 목회자들은 동의한다. TEE의 강점은 바로 훈련 소그룹이다.

한순진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행하는 훈련의 방법들은 내용이 어렵고, 자격 조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TEE는 기존의 개념과 방법을 뛰어넘어 쉬운 방법으로 즐겁고 깊게 배울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 또한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이어 “디지털 시대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신자들에게 편리한 신앙생활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도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방법은 달라져야 하지만, 기본은 지켜져야 한다”며 “TEE를 통한 소그룹 훈련 사역은 기본을 지키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이번 세미나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전화 714-350-4211 또는 웹사이트 teeusa.org에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월드미션대학교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해 화보집 발간

### 2월 15일까지 임동선 목사 관련 사진과 사연 및 소회 수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화보집을 발간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화보집 발간을 위해 임동선 목사와 관련된 사진과 사연 등, 2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한다.

임동선 목사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름과 임동선 목사와의 관계,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만남을 가졌는지에 대한 당시 상황 소개, 임동선 목사 에 대한 소회 등을 이메일(sunglim@wmu.edu)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을 보낼 시 제목은 ‘임동선 목사 사진’ 이라고 기입하면 된다.

임성진 박사는 “고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하는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기념화보집’의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기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구한다”며 “고인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미주 한인 사회와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방향과 목표를 정립하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동선 목사는 1923년 11월 23일 경기도 부천 출생으로 서울신학대와 숭실대(철학과)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교동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공군 초대 군종감(대령)으로 사역했다.

이후 도미해 미군 군복을 거쳐 1970년 7월, 교인 30명으로 LA 동양선교교회를 세웠다. 1987년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조직, 전 세계 90여 개 교회와 기관을 지원했다. 1989년에는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워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했다.

2016년 9월 24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소천 되기 2주일 전까지 남미 4개국 선교를 다녀오는 등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다. 김동욱 기자



TEE 지도자 세미나

## 기독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World Mission University 봄학기 신입생 모집

#### 학위과정별 전공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 (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 복있는 사람 (시편 1:1)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 온라인 100% 트랙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admissions@wmu.edu | kr.wmu.edu



# 신학교 수시·정시 경쟁률, 장신·총신 신학과 3~4:1 수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2023학년도 서울 대와 연세대 등 인기 대학 경쟁률이 3.18:1, 3.72:1로 전년대비(4.13:1, 4.77:1)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신학교들의 상황은 어떨까.

10일 기준 유웨이어플라이에 따르면, 감리교신학대학교(감신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138명, 지원인원은 121명으로 모집 경쟁률 0.88:1을 보였다. 정시 경쟁률은 아직 비공개다.

고신대학교(고신대)는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855명, 지원인원은 3,870명으로 경쟁률은 4.53:1을 보였다. 이 중 신학과 입학정원은 40명이고, 총 지원 인원이 45명으로 경쟁률은 1.12:1을 보였다. 2023년도 정시 총모집인원은 460명, 지원인원이 987명으로, 경쟁률 2.15:1을 보였다. 나군 정원 내 일반전형 신학과는 모집인원 18명 중 14명이 지원해 0.78:1 경쟁률을 보였다.

목원대학교(목원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1,889명, 총지원인원은 8,936명으로 경쟁률 4.73:1을 보였다. 이 중 신학과는 총모집인원 50명, 지원인원은 67명으로

경쟁률은 1:34다. 2023학년도 정원 내 정시 모집인원은 466명, 지원인원은 800명으로 1.72:1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신학과와 경우 정원 내 모집인원 20명, 지원인원 5명으로 경쟁률은 0.25:1이다.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387명, 지원인원은 1,779명으로 4.60:1 경쟁률을 보였다. 신학과 정원 내 모집인원은 44명, 지원인원은 109명으로 경쟁률은 2.47:1이다. 2023학년도 정시의 경우 총모집인원 131명, 지원인원 811명으로 경쟁률 6.19:1을 보였다. 신학과 정원 내 모집 인원은 15명, 지원 인원은 20명으로 경쟁률은 1.33:1이다.

성결대학교(성결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1,102명, 지원인원은 9,250명으로 8.39:1 경쟁률을 보였다. 신학대학 신학과와 경우 모집인원 34명, 지원인원 49명으로 경쟁률은 1.44:1이다. 이의 기독교교육상담학과[주간] 경쟁률은 모집인원 37명, 지원인원 185명으로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학년도 정시는 총모집인원 252명, 지원인원 2,057명으로 8.1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학과와 경

우 모집인원 15명, 지원인원은 25명으로 경쟁률은 1.67:1이다. 이의 기독교교육상담학과[주간]는 6.71:1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2023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과 관련해 총모집인원은 132명, 지원인원은 238명으로 경쟁률 1.80:1을 보였다. 신학과와 경우 정원 내 모집인원 44명, 지원인원은 81명으로 1.84:1 경쟁률이었고, 기독교교육과의 경우 정원 내 모집인원 50명, 지원인원은 93명으로 1.86:1 경쟁률을 보였다. 2023학년도 정시 총모집인원은 49명, 지원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04:1이다. 이 중 신학과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8명, 지원인원은 29명으로 3.63:1 경쟁률을 보였다.

총신대학교(총신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276명, 지원인원은 1,065명으로 경쟁률은 3.86:1이다. 이 중 정원 내 신학과 총모집인원은 60명, 지원인원은 229명으로, 경쟁률 3.81:1을 보였다. 기독교교육과는 정원 내 총모집인원 26명, 지원인원은 142명으로, 경쟁률 5.46:1을 기록했다. 교과우수자 전형에서는 17.50:1이라는 경쟁률이 나

오기도 했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 총모집인원은 89명, 지원인원은 229명으로 2.57:1 경쟁률이 나왔다. 가군 정원 내 신학과 모집인원은 16명, 지원인원은 68명으로 4.25:1 경쟁률을 보였다.

한신대학교(한신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1,052명, 지원인원은 5,894명으로 5.60:1 경쟁률을 보였다. 신학과와 경우, 한신대 참인재종합면접전형에서 신학·인문 융합계열 중 신학과 모집인원은 43명, 지원인원은 49명으로 1.14: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23학년도 정시 총모집인원은 212명, 지원인원은 1,194명, 경쟁률은 5.63:1을 보였다. 일반학생(신학) 전형에서 신학과 경쟁률은 모집인원 17명, 지원인원 29명으로 1.71:1 경쟁률을 보였다.

협성대학교(협성대) 2023학년도 수시 총모집인원은 975명, 지원인원은 5,606명으로 5.75:1 경쟁률을 보였으며, 신학과 모집인원은 52명, 지원인원은 65명으로 평균 경쟁률 1.25:1을 보였다. 정시의 경우 나군 일반(수능) 신학과 모집인원 38명, 지원인원 34명으로 경쟁률은 0.89:1이다. 김신의 기자

## “간첩은 ‘트로이 목마’, 그 세력 철저히 가려내야”

공안당국이 간첩 혐의자들을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오고 있는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13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고 황장엽 씨는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었다”며 “이미 공산주의는 발생한 지 70년 만에 문을 닫았고, 자유민주주의에 비하여 체제 경쟁에서 확실히 밀려났던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주민들의 자유와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나라가 얼마나 있는가. 특히 북한을 보라”라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

라를 만들려고 하겠는가? 그들이 만들려는 세계는 어떤 것이겠는가? 그들이 돕는 세력은 누구겠는가? 그들을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발본색원(拔本塞源)하지 않고는 우리의 평안과 안보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전복시키려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지금도 숨어서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트로이의 목마’이므로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독재정권을 위하고, 그 주민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으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동지를 허무는 간첩(間諜)들을 풀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간첩은 마치 암탉이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독사 새끼로 깨어나면 어미 닭을 물어 죽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행한 결과가 오기 전에 이적(利敵) 행위를 세밀하게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간첩행위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무를 갉아먹는 것이고, 국가 안전의 독에 구멍을 내는 것이며, 국가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독약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역사적으로 볼 때 내부의 분열과 배신으로 망한 나라는 부지기수이다. 우리는 이를 경계한다”고

## 한국CBMC-한국CCC 선교 협약

한국기독실업인회(한국CBMC, 중앙회장 김영구)와 한국대학생선교회(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가 11일 서울 부암동 한국CCC 민족복음화 전략센터 2층에서 선교협약(MOU)을 맺고, 캠퍼스 선교와 일터 선교의 시너지를 통한 민족복음화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양 기관 대표는 △민족복음화와 캠퍼스복음화, 일터 선교를 위한 동반자적 선교 협력 △미래 세대 기독교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학 및 취·창업 사업에 협력 △기독실업인 사업 운영에 컨설팅 연구협력 사업 진행 △한국 사회 개혁·변화를 위한 봉사활동 및 공동체 사업 진행 △기타 상호 발전·협력에 필요한 사업 및 사항에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선교 협약서에 서명했다.

강용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협약식은 전용수 CBMC 중앙운영이사 대표기도와 김철성 교수의 경과보고, 양 기관 대표 인사말, 협약 내용 낭독과 서명, 사진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CBMC 김영구 중앙회장은 “CBMC와 CCC와의 만남이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왼쪽부터 한국CBMC 김영구 중앙회장, 한국CCC 박성민 대표 ©한국CBMC

“양 기관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다시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CCC 대표 박성민 목사도 “비즈니스 선교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CBMC와 캠퍼스 사역을 섬기고 있는 CCC 양 기관이 본격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기독교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05분
  - 2부 오전 9시 05분
  - 3부 오전 11시 05분
  -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 YES 청년부(본당) 한어대학부(KDC Hyssop Hall)
-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10분
  - 2부 오전 11시 10분
-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org](http://www.holywave.org)
- 청년·대학부**
- YES 청년부: 주일 오후 2시(본당) • 금요집회: 매달 첫째주 오후 8시(본당)
  - 영어청년부(NEXT): 주일 오전 9시 10분 / 오전 11시 10분(KDC Hyssop Hall)
  - 한어대학부: 주일 오후 2시(KDC Hyssop Hall)
  -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10분(은혜채플)([holywave.org/ecollege](http://holywave.org/ecollege))
- 교회학교** 주일 2,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10분
-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 사랑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시(112호)
- \*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 772-7777 E-Mail: office@sarang.com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Tel: (714) 563-2422

[www.sarang.com](http://www.sarang.com)

#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김은호 목사 “다수 역차별 받을 것”

### 국회 6문 앞에서 제정 반대 호소

오윤교회 담임 김은호 목사가 12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6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최근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 김 목사도 동참한 것이다.

김 목사는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나쁜 악법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가정을 해체하기에 시위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이 언제 교회 안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회와 가정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비관조차도 차별이라는 프레임에 묶여 법으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많은 목회자와 교사와 학부모들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



12일 아침 국회 6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왼쪽부터 김원평 교수, 김은호 목사, 안석문 목사) ©장지동 기자

이라고 했다.

또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미 편향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동성 간의 결혼을 미화하는 방송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그런데 만일 국회가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며, 급기야 남자 머느리를 맞아들이고, 여자 사위를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며,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악법에 대해선 세대 간과 지역 간의 갈등, 이념을 뛰어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일에 국민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김은호 목사는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해 “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율성이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개념이 사라졌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고, 복음을 제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 최근 마친 초교과 기도모임인 다니엘기도회를 언급하며 “매일 다 같이 하는 공동 기도문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회에 참여한 수십 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며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지동 기자

# 故 최건호 기성 전 총회장 장례예배, 교단장으로 엄수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최건호 목사의 장례예배가 13일 엄수됐다. ©기성

### 향년 87세로 소천... 교단 부흥 앞장·연합·일치운동 기여

사신 분”이라며 “고인을 본 받아 그분이 못 다한 일을 남은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의 떠남을 아쉬워하며 조사를 전한 전 총회장 이정익 목사(신촌교회 원로)는 “최건호 목사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든든한 버팀목이셨다”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고군분투하는 많은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전한 전 부총회장 서병하 장로(충무교회 원로)는 충무교회가 서울 충무로에서 강남 대치동으로 이전해 새 예배당을 건축할 당시를 회상하며 흐느꼈다. 그때 건축위원장이었던 서 장로는 “새 예배당을 다 짓고 마지막으로 종탑을 올린 후에 무릎을 꿇고 충무교회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다”며 고인을 그리워했다.

충무교회 연합성가대의 조가와 고별목념 후 성장용 목사의 인사와 전 총회장 이정익 목사의 축도로 장례예배를 마무리하고 참석자들이 차례로 헌화했다. 헌화를 마친 후 운구위원들이 관을 운구차량에 실었으며 참석자들은 찬송을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故 최건호 목사는 1967년 기성 제22회 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도봉교회(개척), 성광고회, 충무교회에서 시무했으며 2006년 충무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교단에서 서울서지방회장, 중앙교육원장, 총회교육원장, 서울신대 이사, 기성 제49대 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계에서는 서부지역 부협의회 회장, 강남교경협의회 회장, 기독교서부협의회 임원, 기독교신풍운동회장, 국가조찬기도회 교문 등을 역임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 총회장 최건호 목사(충무교회 원로)가 지난 10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존경 받는 목회자로 교단 부흥에 힘썼던 故 최건호 목사는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도 크게 기여하며 기성의 대표적 지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13일 고인이 생전 시무하던 충무교회(담임 성장용 목사)에서 교단장(葬)으로 엄수됐다. 부총회장 임석웅 목사가 집례한 이날 장례예배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총회임원, 교단 원로, 서울강남지방 및 충

무교회 교역자·성도, 총회본부 직원 등 150여 명이 모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부총회장 유승국 장로의 기도 후 ‘짧은 세상, 영원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총회장 김주현 목사는 “우리의 인생은 짧고 세상에서 받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며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회장은 또 “故 최건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 새로운 시대를 위한 GMU공개교육 세미나

그레임션대학교(GMU)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학, 상담,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무료공개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는 특강과 질의와 응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Zoom 으로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b>신학부</b> <b>1월 23일(월)</b> 6:00~8:30pm	<b>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b>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목회자들도 큰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목회에서 요구되는 변화, 그것의 수용여부와 그 한계는 전환기적 목회상황을 맞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목회적 고민을 갖게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해법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강사: 황성철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은퇴교수)
<b>다문화교육</b> <b>1월 24일(화)</b> 6:00~8:30pm	<b>새 시대를 향한 선교적 전진과 통합 교육</b> 예측하기 힘든 변화의 물결의 새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교육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시대적 복음의 확장과 전진을 위한 선교적 전략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강사: 최재훈교수(MAICS), 장영미교수(MACE)
<b>상담학부</b> <b>1월 26일(목)</b> 6:00~8:30pm	<b>행복한 삶을 위한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b> 우리 사회는 알코올,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독’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치료 그리고 예방에 대해 소개합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이 살아나는 변화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권오균 교수(CATC-V, Ph.D), 최은아 교수(Family Therapy, Ph.D), 이해왕 선교사(“중독증 치유” 교재 저자)



## GRACE MISSION UNIVERSITY

장소: Grace Mission University (미라클센터 #316)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E-mail: gmu@gm.edu

학교홈페이지: www.gm.edu

# 낙태, 4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 지난해 약 4,400만 건 나머지 주요 원인들 합친 것보다 사망자 수 많아

낙태가 4년 연속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1위에 올랐으며, 낙태 사망자 수가 코로나 19 전염병 사망자 수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전문 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는 전 세계 낙태 건수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가 만든 디지털 타임캡슐인 '더 웨이백 머신'(The Wayback Machine)이 지난 12월 31일 캡처한 2022년 월드오미터의

마지막 사용 가능 스냅샷은 작년 전 세계적으로 약 4,4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월드오미터는 낙태 통계 출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팩트시트를 인용하고 있지만, WHO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7,300만 건의 인공 낙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WHO는 낙태를 필수적인 건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월드오미터가 확인한 2022년 주요 사망 원인 2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약 1,300만 명의 사망자를 냈다. 3위 암은 약 800만 명, 4위 흡연은 약 500만 명, 5위 알코올 관련은 약 250만 명, 6위 에이즈는 약 2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으며, 이 수치들을 다 합해도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적다.



©Pixabay

월드오미터가 확인한 주요 사망 원인에는 작년 1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와 100만 명을 넘긴 자살이 포함된다. 수

인성 질병으로 약 80만 명, 계절성 독감으로 약 50만 명이 사망했다. 약 40만 명이 말라리아로, 약 30만 명의 여성이 출산 중 사망했다.

월드오미터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총 사망자 수가 6,700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수치에는 낙태 건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될 경우 2022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세계 총 인구는 80억을 약간 상회했다.

2022년 낙태 건수는 2021년 측정된 약 4,400만 건에서 소폭 올랐다. 낙태는 2020년에도 약 4,400만 건, 2019년에는 4,240만 건 시행됐다.

강혜진 기자

## 담임목사가 교직원을 괴롭히는 15가지 방법은?

미국 '처치앤서즈'(Church Answers) 회장인 샘 레이너(Sam Rainer)가 '담임목사가 교회 직원을 괴롭히는 15가지 방법'을 칼럼을 통해 소개했다.

플로리다주의 웨스트 브레이든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레이너 목사는 "담임목사는 두 개의 페르소나(persona, 자신의 본성과는 다른 태도나 성격)를 가질 수 있다. 교인이 그중 하나를, 교회 직원이 다른 하나를 알고 있다"며 "목표는 모든 사람 주위에서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이분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직원을 잘 이끌지 못하면서, 교인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면 상황은 의아해진다"면서 "교회 직원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사랑하는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혐오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특별히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척을 하라.
2. 회의 중에 메모하지 말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라. 더 나은 방법은, 모든 대화를 "팀(team)" 회의에서 하는 것이다.
3. 당신이 마음가는 대로 비전을 세워라. 그런 다음 이 선견지명 없는 것을 달성하도록 불을 지피라.
4. 팀을 위해 크고, 계속 진행 중인 일을 설계하라. 그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5. 사소한 일로 많은 드라마 같은 일을 만

들어라.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라.

6. 직원에게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런 다음 예배 중에 교회 강단에서 정반대의 것을 말하라.

7. 누구도 훈계하지 말고 모두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써라.

8. 당신의 직속 보고자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인의 말을 더 경청하라.

9. 휴가가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0. 교인들에게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 직원 간의 갈등 문제는 회피하라.

11. 직원을 위해 규칙을 만들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예외를 만들어라.

12. 지역 교회보다 교단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라.

13. 방 안의 코끼리(힘든 문제)에게 절대로 말을 걸지 마라. 대신 그곳에 없는 척 하라.

14. 당신보다 더 재능 있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위기감을 느껴라. 당신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능 밖의 사역으로 재배치하라.

15. 겉보기엔 영적이지만 실제로는 방 안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헌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라.

끝으로 레이너는 담임목사 중에 "대부분은 놀라운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때때로 문제는 맨 위에서 시작된다"라며 "이 목록은 물론 극단적이지만 스스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 신앙 애니 '윙페더 사가', 5주 만에 조회수 '360만'



©The Wingfeather Saga

신앙을 기반으로 한 가족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윙페더 사가'(The Wingfeather Saga)가 만화로 제작된 지 한 달 만에 360만 명의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며 흥행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에 따르면, 윙페더 사가는 엔젤 스튜디오 앱을 통해 무료 시청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360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기독교 가수이자 작가인 앤드류 피터슨(Andrew Peterson)의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한 윙페더 사가는 '팬족'들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에서 악과 싸우는 이기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예수님을 소재로 한 '더 초즌'(The Chosen)에 이어 엔젤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2번째 시리즈물, '반지의 제왕'이나 '나이아 연대기'에 나타나는 구축적 판타지 특이한 가족 친화적 애니메이션이다.

지난 12월 2일 엔젤 스튜디오에서 선보였으며, 클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됐다. 엔젤 스튜디오는 시즌 1 제작을 위해 약 5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시즌 7까지 배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시즌 1의 6개 에피소드 중 3개가 방영 중이며, 나머지 에피소드들은 각각 2월 10일, 2월 24일, 3월 10일에 선보인다.

강혜진 기자

## 미국의 교단주의 쇠퇴, 기독교 침체 신호일까?

### 마크 톨리 전 IRD 회장 "비교파 급성장에...교단 구조 재편될 것"

전 미국 기독교 보수 싱크탱크의 회장이 개신교 교단의 쇠퇴를 진단한 칼럼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최근 소개됐다.

이 글을 쓴 마크 톨리(Mark Tooley)는 2009년 종교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IRD)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IRD가 발간하는 외교 및 국가 안보 저널인 프로비덴스(Providence)의 편집자다.

톨리는 칼럼에서 "미국의 교단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비교파(Non-denominational)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가톨릭이 아닌 종교 집단"이라며 "거의 모든 교단이 쇠퇴하고 있다. 진보파는 보수파보다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 성장하는 거의 모든 교회는 비교파적"이라고 했다.

그는 IRD가 "연합감리교, 성공회, 장로교(PCUSA)를 위한 특별 갱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들이 통치하는 대회에서 입법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2000년대 초중반, (교단을 고수하는) 전통주의자들은 이 교파들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떠나거나, 새 교단을

만들거나, 새로운 현실에 굴복했다"며 "예외적으로 연합감리교는 전통주의자들이 법적으로 패한 적은 없지만, 현재 대부분 새 교단을 향해 떠나고 있고, 세계 교단의 미국 지부는 남아있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있다"고 했다.

또 "주류 개신교에서 탈퇴한 새로운 교단은 군더더기나 관료주의가 없고, 여러 면에서 미국의 탈교단주의를 반영한다"면서 "아마도 미국에 큰 교단이 남침례회(SBC) 하나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침례회는 매년 수십만 명의 교인을 잃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순절적이고 매우 다민족적인 하나님의 성회(AOG)와 같은 몇몇 교단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지지자들이 반드시 교단과 강한 동질감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그들은 자신을 기독교인 또는 오순절 교인으로 간주하고 교인들과 연관이 있지만, 교단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톨리는 "미국의 교단주의의 쇠퇴는 여러 면에서 슬프다. 주류 개신교 교단들은 침례

교와 몇몇 다른 교파들과 함께, 미 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 종교와 많은 시민 사회의 기둥이었다"라며 "모든 성공적인 운동과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해 다세대적인(multigenerational) 기관이 필요하다. 정통성 있는 기독교는 제도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미국 교단의 쇠퇴가 반드시 미국 기독교의 쇠퇴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제2차 대각성 운동에서 등장했거나, 그 교단에서 분리되거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성결 운동과 오순절 부흥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음주의의 부상은 교단 활동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지만, 많은 활동이 독립된 파라처치(Para-Church) 사역에서 비롯되었고 현재 탈교파 시대에 기여했다"고 했다.

톨리는 "물론 구 교단주의의 양상은 계속될 것이다. 많은 남침례교 신학교들은 꽤 강력하며 탈교파적 미국을 위해 성직자들을 배출할 것이다. 또 많은 교단들은 훨씬 더 작은 규모와 날씬한 구조로, 교단을 덜 강조하며 살아남을 것"이라며 "그들의 자리에는 비공식적 교회 네트워크에 의해 약화된 조합 교

회주의(Congregationalism)가 성장할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나 회중적으로 어떤 교파적 전통에 국한되지 않는 온라인 자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그는 "교단과 그 구조의 중요성은 감소하지만, 교단을 탄생시킨 전통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톨리는 "루터교, 칼뱅주의, 성공회, 웨슬리교, 복고주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침례교는 - 항상 교단에 의해 신중하게 관리되지는 않더라도 - 미국에서 지속되고 이따금 변창할 것"이라며 "교단 시대 이후의 대중적 경건은 항상 변창할 것이며, 그 이면에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제공하는 정통 개신교 신학의 엄밀한 외형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개별 기독교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 쉬워졌다. 더 이상 교단이란 필터는 없다. 오래된 교단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개신교 전통은 가톨릭 가르침과 다른, 역사적 기독교 틀로 보완되어 우리의 기준으로 남아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 기독교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영적 구도자들에게 가장 잘 봉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기독교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현희 담임목사
늘웁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형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t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희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cc@gmail.com





女의사 없는데... 아프간 한 지방서 “男 의사와 女 환자 면회 금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모스크인 마스지드 알하람(Masjid al-Haram). dAdli Wahid/ Unsplash.com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방에서 여성이 남성 의사를 만나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간행물인 더커런트(The Current)는 아프간 일간지(Hasht-e-Subh)를 인용해, 최근 발크(Balkh) 지방 탈레반의 지도부가 남성과 여성 병원 직원을 위한 별도의 업무 공간을 만들고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가 있는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인 아슈위니 쉬리바스타바(Ashwini Shrivastava)는 8일(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탈레반은 아프간 발흐 지방에서 여성이 남성 의사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에는 여성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여성 의사도 없다”고 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소속 여성 인권 문제 전문가인, 아프간 출신의 사하르 페트랏(Sahar Fetrat)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이러한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탈레반의 지속적인 여성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기본권과 시설에 대한 여성의 접근권과 제한 조치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페트랏은 “2021년 8월부터 아프간에서 여성의 권리는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탈레반은 여성의 자유와 주체성을 빼앗고 여성과 소녀들을 사회적·정치적 영역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권리에 대한 탈레반의 끊임없는 공격은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고

용, 의료 서비스, 기관 활동을 박탈했다”고 했다.

지난 11월 워싱턴포스트(WP)는 “탈레반 정부가 아프간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여성 의료 전문가들의 교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 많은 여성 의사를 훈련시키려는 이 같은 노력은 아프간 여성의 중등교육을 금지하는 움직임과 모순된다. 아프가니스탄 34개 주 가운데 24개 주들은 소녀들이 6학년 이상의 정규 교육을 마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여성들은 탈레반이 세력을 장악한 이후 해외로 떠났다.

이에 대해 유니세프의 선임 건강 고문인 포우지야 사피크(Fouzia Shafique)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조산 과정에 등록하거나, 구급대원이 되거나, 예방 접종자로 훈련받으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며 “이제 2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없기에 훈련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수년간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해 오던 미국은 지난 2021년 나머지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을 빠르게 장악했고,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카탈 공항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미국을 도왔던 미 시민과 아프간인들의 철수를 돕기 위해 약 6,000명의 병력을 일시적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100여 명 개종시킨 우간다 성도, 급진 무슬림에 참수당해



© Britannica, Inc.

1월 초 동부 우간다에서 열린 기독교인-무슬림 토론에 참석했던 한 기독교인 남성이 급진 무슬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닝스타뉴스에 따르면, 4명의 자녀를 둔 아하마다 마파비(Ahamada Mafabi)는 음발레 외곽 시론코 지구인 나카로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중, 2대의 오토바이에 탄 괴한들에 의해 참수됐다.

그들은 ‘신은 위대하다’라는 지하디스트 구호를 외친 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그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제압하고 칼로 목을 쳤다.

앞서 토론회장에서 무슬림들은 “마파비, 이사(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신성모독적 행위를 그만두라”며 그에게 회의장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이를 지켜보던 A목사는 2명의 기독교인들에게 마파비를 부탈레자 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를 호위하던 1명은 “집에 도착한 후 4명을 태운 2대의 오토바이가 뒤따라 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우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긴 칼로 마파비의 목을 쳤다”고 말했다.

마파비는 2020년 12월 부탈레자 지역의 한 마을에서 A목사를 여러 차례 만난 후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개종했다. 그 목사는 그의 개종에 화가 난 무슬림들에게서 마파비를 보호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집에 들였다가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

이슬람과 기독교에 정통했던 마파비는 A목사가 2021년 중반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토론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왔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1년간 100명 이상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마파비는 4번의 암살 시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적대감에 직면했고, A목사는 “우리 무슬림들을 당신의 교회로 데려가지 말라.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 메시지도 받았다.

A목사는 마파비의 소식을 전하며 식량, 거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그의 처와 자녀들을 위해, 또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이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새로운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했다.

경찰에 범죄를 신고한 A목사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는 기독교 박해와 더불어 오는 영적인 전쟁의 일부이며,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West Hill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Omyoung and contact information.

Eunhe & Pyeongga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Kwak Deok and contact information.

Juwan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Choi Hee and contact information.

Choonhyu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Gukyun and contact information.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Gadi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Shin Taeseop and contact information.

Gadi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Lee Homin and contact information.

Daeho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 Jung-hoon and contact information.

Dulros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Seobcheon and contact information.

Eunh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 Gyeong-hwan and contact information.

Cornerston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Lee Jong-yong and contact information.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 Jun-woon and contact information.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Go Hyeon and contact information.

Seritos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Bang Sang-yong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ristian daily news and support.

Thanksgivi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Gubongju and contact information.

Namgam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Baek Joong and contact information.

Lord's Light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Joo Heok and contact information.

Nulpo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An Chang-hoon and contact information.

Daunijel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Jieong-hwan and contact information.

Lagu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Lim Heon and contact information.

Bethel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Kim Han-yo and contact information.

Alba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ark Shin-yong and contact information.

Orange County Fellowship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Nam Seung and contact information.

Eunhe Fellowship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Han Gid and contact information.

Together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ark Ho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Christian daily news and support.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1)

요한복음 7:37-5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영어로는 Christian(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 받았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선물로 받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복락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생활을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인의 결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음부라는 곳으로 가는데 음부라는 말은 계해나, 하데스, 영어로는 jail(제일), 유치장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가두어 놓는 곳에 갑니다. 왜 갇혀 있어야 하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 세상에 구름과 흑암이 캄캄하게 임합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빛을 잃고 반딧불이 있어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흑암한 세상에 새벽별같이 유일한 빛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온 하늘나라에 가있던 영들이 각각 천사들에 이끌려서 자기 육체가 되살아나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1. 우리는 지금 육신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조건에 대한 기대가 탐욕으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면서 빠기고 싶고, 남들 위에 군림하고 행세하고 싶고, 또 남들이 부러운 눈으로 보아 주기를 기대하는 이런 가식적이고 허황된 인생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술 퍼마시고, 도박도하고 이성간에 음란, 간음하기도 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와 가치는 육체뿐으로만 알았습니다. 바디(body), 프래쉬(flesh), 피지칼(physical)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몸만 알았습니다. 이 육적인 욕구는 짐승과 같아 짐승처럼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영적인 존재를 알게되고 영적가치에 기대를 갖게 되면 서부터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육체의 자기가치에 전폭적인 기대를 모아 사느라고 외제라면 다 좋은 것인가 싶어 빛을 지면서까지 사들이며 치장하느라 빛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어리석게도 껌데기뿐인 육체를 너무나 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 껌데기보다는 알맹이의 가치를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내 영이 잘돼야 내가 모든 일이 잘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소망이 확실

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과정이 그 인생 영적구원의 보장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29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The Father and I are one.)”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고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불러들이셨을까. 이것은 나에게 육체가 전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하나님과 같은 것이니까 그 영이 하늘나라로 되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 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은으로 된 향아리가 있습니다. 은은 번치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은 향아리에 붓게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훗날 영원한 소망을 위하여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은향아리에 들어있는 실로암 못물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옛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나이 벌판을 지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했는데, 그 백성들이 물이 없는 곳이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손에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앞드려 “주여,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출17:4)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렘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출17:6~7)하신 말씀대로 호렘산으로 올라가서 큰 반석 주위에 장로들을 둘러 세우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세상이던 애굽에서 공중 권세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애굽왕 바로)의 명에와 채찍에서 해방시켜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젓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그들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 백성은 모세에게 맡겨진 양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시는데 모세는 그 양떼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물 없는 곳으로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은 인도하게 했던 것은 그동안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기 독단적인 결정으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것을 장로들이 똑똑히 보게하심은 백성들의 우두머리적인 그들이 먼저 알고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이며 실질적인 하나님의 권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 변화유치면 판매단가 할인합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이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 칠삭 오징어떡 /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강준민 칼럼

# 빈 배 속에 담긴 축복의 비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시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준비는 중요하지만 어떤 분은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낸 분이 있습니다. 시작도 해 보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새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처럼, 빈 배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놀라운 미래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헨리 나우웬의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의 일본의 스승인 난인이 선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 온 한 대학교수를 맞았다. 난인은 차를 대접했다. 그는 손님의 잔에 계속 차를 부어서 마침내 줄줄 넘쳐흐르게 되었다. 교수는 잔이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해 말했다. '넘칩니다. 꼭 차서 더 못 담는데요!' '이 잔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결론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선에 대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헨리 나우웬, 『영적 발돋움』, 두란노, 79쪽). 진정한 배움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텅 빈 그릇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텅 빈 그릇은 새로운 것,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텅 빈 그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빈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빈 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 꿈을 꿉니다. 새 목표를 설정합니다. 새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새 해를 맞이해도 새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속해서 목표

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결심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저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설교하고 글로 쓰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가르치는 중에 어느 날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빈 그릇처럼 빈 배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배는 빈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빈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가 가득 찬 배에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찾아가신 것입니다. 새 해를 맞이했지만 빈 배가 되어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 배를 깊은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경험할 때는 바로 빈 배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

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하).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눅 5:6). 그의 빈 배가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빈 배 덕분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빈 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빈 배 덕분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빈 배 덕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빈 배 덕분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빈 배의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베드로는 빈 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빈 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빈 배에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빈 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한요 칼럼

# 목표가 중요하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작년 슈퍼볼 우승팀인 엘에이 램스가 지난 주일,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 탈락하는 부진한 성적을 내었습니다. 벌써부터 감독인 셉 맥베이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슈퍼볼에서 우승했을 때, NFL 최연소 감독으로 팀을 슈퍼볼 챔피언으로 만들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이제는 거취

가 불투명해질 정도로 일 년 만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작년에 해성같이 나타나 프로 풋볼팀이 오랫동안 없었던 엘에이에 풋볼 바람을 일으키며 우승했던 팀이, 일 년 만에 플레이오프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셉 맥베이 감독이 작년 슈퍼볼에 우승한 후, 우크라이나 출신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했고, 또한 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할아버지의 별세 후, 그 고통이 심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겠냐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은, 그가 수많은 스포츠 방송사에서 풋볼 경기해설자로 제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풋볼 감독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송 해설자로서 또 다른 커리어로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2017년 31살의 나이로 램스 감독을 맡아 매년 성적을 끌어올려 작년에는 우승까지 했으니,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어 더 이상 올라갈 목표가 사라져 경기에 집중하는 열정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성적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최고의 정점을 찍은 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때 절망과 허탈함이 몰려옵니다. 마치 메시야 신드롬에 걸린 사람처럼 "다 이루었다" 선포하고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야도 아니고, 풋볼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경기입니다. 올해 이기고 저도, 내년에도 또 시작되는 경기일 뿐입니다. 우승이 인생 최고의 정점이 아닙니다.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인생은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우승했다면 또 다른 우승을 향하여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두 번 우승

했다면 아직 프로 풋볼 역사상 없는 10회 연속 기록에도 도전해 볼 만합니다. 한번 우승했다고 목표를 상실하여 성적이 부진했다는 분석은 정말 말아야 합니다.

마침 지난 9년간 LA 프로 야구 다저스에서 뛰던 저스틴 터너(Justin Turner)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하고 이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스틴은 아쉬워하는 많은 팬에게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남겼는데, 다저스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또 한편 새로운 길을 가는 의욕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팬으로서 섭섭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커리어에 도전하는 그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엘새와 함께 시작한 새해는 토끼처럼 새로운 영적 승리를 향해 경종경종 뛰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Always Be There!!



2023 에피 뉴 이어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36개월까지 2.9%이자가능

# 2.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36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36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진유철 칼럼

두로 현상과 말씀을 붙든 거부는 다르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두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 해변가에 위치한 두로와 해변을 따라 북쪽 약 40km에 위치한 시돈에는 성경에 베니게라고 기록된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농사짓기에 부적당한 레바논 산맥 주위에 살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에서 나는 좋은 목재로 어선을 만들어 해상무역에 종사했는데, 지중해 맞은 편 스페인의 지브롤터 근처까지 이를 정도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덕분에 경제 강국, 무역 대국이 되어서 두로에는 각종 진귀한 물건과 풍부한 곡물, 향품, 보석 등 돈이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로 알파벳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를 라틴어로 ‘포에니’라고 부르는데, 강대국 로마와 2차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벌일 정도의 강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두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자기를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하기에 돈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부심도 생기고 안정감에 빠져듭니다. 급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두로를 향해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겔28:2) 결국은 망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처음 ‘거부’가 출현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부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카네기, 록펠러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니까 소유의 문제는 희미해지고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카네기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카네기홀을 비롯하여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교육과 문화 분야에 3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건물도 지었습

니다. 그는 핵무기 감축 관련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죽기 전까지 재산의 90% 이상을 기부한 ‘거부’였습니다. 록펠러도 철저히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록펠러 재단을 통해 3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의학연구소, 뉴욕 현대미술관, 링컨 센터도 세우고 유엔본부 땅도 기증하였습니다. 허드슨 강변에 세운 리버사이드 교회당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5천여 개의 교회당을 건축했고, 세계 52개국에 자선단체를 세워 기아근절, 인구문제 해결, 기회 균등과 문화발전,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원조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엄청난 기부를 했습니다. 돈만 많은 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거부’였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빛이 될 ‘거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성 칼럼

이태원 참사 일으킨 ‘할로윈 축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할로윈 축제의 역사적 고찰과 성경적 비판(1)



김 재 성 교수  
전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서양에서 온 전통적 축제라고는 하지만, 어둠이 뒤덮이는 저녁 시간을 기다려서, 괴이한 복장으로 꾸민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한다. 서구 유럽과 미국에서 퍼져나간 할로윈 축제는 전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따라가야 할 선한 것이라 전혀 아무것도 없다.

도대체 한국의 젊은이들이 우루루 몰려나가게 했던 그 할로윈 축제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비극의 원인이 되었던 할로윈 축제란 누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가? 무섭고 저주스러운 온갖 복장들, 뱀파이어, 귀신, 유행 등으로 집 앞을 장식하고, 잔디밭에는 각종 형태의 무덤을 만들어놓고, 오렌지 잎으로 환관 입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머리와 얼굴은 죽음과 폭력을 상징하는 가발들로 꾸미고, 아이들은 밤이 어두워질 때를 기다려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사탕이나 초콜릿을 얻어간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이한 축제인가?

**1. 할로윈 축제의 기원과 확산**  
할로윈 축제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크게 두 가지 줄기의 흐름이 뒤섞여 있다. 첫 출발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순교자 기념 축제일로 지켜오기 시작한 것인데, 비성경적 교리들이 혼란스럽게 결부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대 켈트족에서 상류층에 속하던 “드루이드들”(the Druids)이 매년 1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지켜오던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어떻게 해서 할로윈 축제가 유럽 기독교 국가들 속에 퍼져나가게 되었는가를 살펴 보자. 초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세속적인 건물을 예배와 순교자들의 기념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단장하고 재선포하는 장엄한 헌정 행사가 있었다. 점차 세월이 거듭되면서, 이 기념 행사는 터무니없는 기적을 기대하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탈리아 로마에 세워진 “판테온”은 거대한 동그런 돔을 지붕으로 하는 매우 독특한 건축물이다. “판테온”이라는 헬라어는 “모든 신들에게”라는 뜻이다. 판테온의 최초 건축물은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가요 건축가였던 아그립바가 자신의 장인이 된 씨저 아우구스투스의 치세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전 27년에 세웠는데, 주피터 신에게 헌정하였다. 지금도 아그립바의 이름이 전면에 새겨져 있다. 이 최초의 건물이 화재로 무너지자, 주후 126년에 하드리아 황제가 내부에 장식들은 그대로 둔 채, 재건축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William L. MacDonald, The Pantheon: Design, Meaning, and Progen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인 후, 주후 607년 포카스 황제(Phocas)가 교황 보니페이스 4세에게 헌정하자, 판테온 건물 전체를 물로 씻어내는 재단장을 한 후에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리아와 초대 교회 시대에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예배가 주후 608년 5월 13일에 열렸

고, 그 때부터 이 건물은 기독교의 예배공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며, “산타 마리아 로툰다”로 불려졌다. 그 후로, “성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예식을 매년 거행하게 되었다. (J Gordon Melton, ed., Religious Celebrations: An Encyclopedia of Holidays, Festivals, Solemn Observances, and Spiritual Commemorations, Vol. 1. ABC-CLIO, 2011)

이미 동방정교회에서는 오순절 후 첫 주일날, 주로 5월 13일을 “순교자들의 날”로 기념해 오고 있었다. 주후 373년에 사망한 동방교회의 신학자, 에브라임 사이러스 (Ephraem Syrus)의 글에 순교자 기념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처럼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축제일을 서방 로마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보니페이스 4세가 더욱 더 확대해서 “순결한 마리아와 모든 순교자들”로 확대한 것이다. (계속)



미국 어느 집 정원에 장식된 할로윈 축제의 모습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48대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회장 : 이영수 장로**  
**취임회장 : 오승홍 장로**

- **일시** : 2023년 1월 22일(주일) 오후 4:30
- **장소** :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박일영 목사)  
1374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323) 733-2922
- **문의** : (909)319-2159, (213)321-2329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40년 전통의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2,950**  
(전일정 항공포함)

let's go 이스라엘 성지순례

**예루살렘 7박8일**

10월 9일 출발

베들레헴과 감람산과 갈릴리와 사해  
다윗의 피신처, 유대광야와 맛사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문의 : 213) 819-5132, 714-534-1911  
주관: 세기여행사, 파이오니아 여행사

\*상기 상품의 일정과 비용은 항공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메이첸, 한국교회가 읽어야 할 보배

# 메이첸의 이 저술, <순전한 기독교> 급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  
J. 그레섬 메이첸 | 노진준 역  
WPK | 688쪽

탈-진리 시대,  
시간을 초월하는 고전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소통하려고 했던  
메이첸 박사의  
진실성과 방향성

J. 그레섬 메이첸(John Gresham Machen, 1881-1937). '그레섬 메이첸'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메이첸'이라고 김길성 박사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첸'이라고 합니다.

우리 출판사들이 각각 메이첸 박사의 저술을 번역해 출판했는데, 저는 한 출판사 혹은 연합해서 전집으로 된 작품을 선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이첸 박사의 저술은 <기독교와 자유주의>(김길성 역, 크리스찬서적/ 황영철 역, 복있는사람), <메이첸 박사 저작선집>(김길성, 종신대 출판부)에서 번역했고, 정규철 박사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CLC)을 번역한 상태입니다.

<신약 헬라어>(CLO), <기독교와 현대사상>(CLC), <바울 종교의 기원>, <믿음이란 무엇인가?> 등도 김효성 박사, 김남식 박사에 의해 번역되어 있습니다. 메이첸 박사의 저술을 만나면 기쁩니다. <바울 종교의 기원>은 미국의 이민철이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메이첸 박사의 글은 매우 예리합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 변증 최선봉에 서 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첸은 비평할 때 객관적 방법 그리고 상대방이 규정한 규범으로 상대방을 비평합니다. 때문에 상대가 메이첸의 변증에 대해 항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는 이유는 메이첸 박사의 신학 작업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진영 연구자들도 메이첸 박사의 저술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시대에 좋은 연구자는 독일 루터파 신학자 게르하르트 마이어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루터파의 약점과 칼빈의 견해가 잘 반영되어, 계시 문서에 근거한 성경 이해로 기독교 진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메이첸 박사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출판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2020년 출판된 저술입니다. 메이첸 박사의 유고들을 묶어 편집한 구도입니다. 메이첸 박사 글에 미국 장로교 모든 신학교 교수들이 지지(Endorsements)의 글을 보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2017년 소천받은 스프라울 목사의 글도 포함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진행된 기획으로 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부제가 'A Systematic Introduction to the Christian Faith and Reformed Theology(기독교 믿음과 개혁신학 서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번역되어 단순한 신학 에세이로 보이지만, 기획자들은 미국 장로교 신학의 기초적 정보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판사(WPK)가 소개한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이에 비할 것이 없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루이스가 행한 변증과 메이첸 박사가 행한 변증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메이첸 박사는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구체적으로 변증했습니다.

제가 살핀 영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보였습니다.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말에 의하면, 메이첸의 답화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명확하게 표현했으며, 개혁 신학에 대해서 특별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보았습니다(In the vein of C.S. Lewis's landmark "Mere Christianity" talks, Machen's addresses are a crystal-clear articulation of the basics of the Christian faith, unfolding into an exceptional and persuasive explanation of Reformed theology).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미국 동부와 서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메이첸 박사의 신학이 잘 계승되지 않은 점입니다. 반틸 박사가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해 변호했는데, 그 뒤로 현대신학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의 자



J. 그레섬 메이첸

세가 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청교도주의로 경도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신학에 대한 비평 혹은 변호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첸 박사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효과적으로 변호해서, 미국 신학의 큰 기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주의에 대해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습니다.

반틸 박사(Cornelius Van Til, 1895-1987)와 서철원 박사가 현대신학에 대해 잘 변호했기에, 우리는 그 그늘에서 현대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메이첸 박사와 반틸 박사 사이에는 박형룡 박사(朴亨龍, 1897-1978)가 있습니다. 박형룡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경 축자영감을 변호하고, 칼 바르트 신학에 맞서서도 변증했습니다. 그러한 신학의 기초에 메이첸 박사의 신학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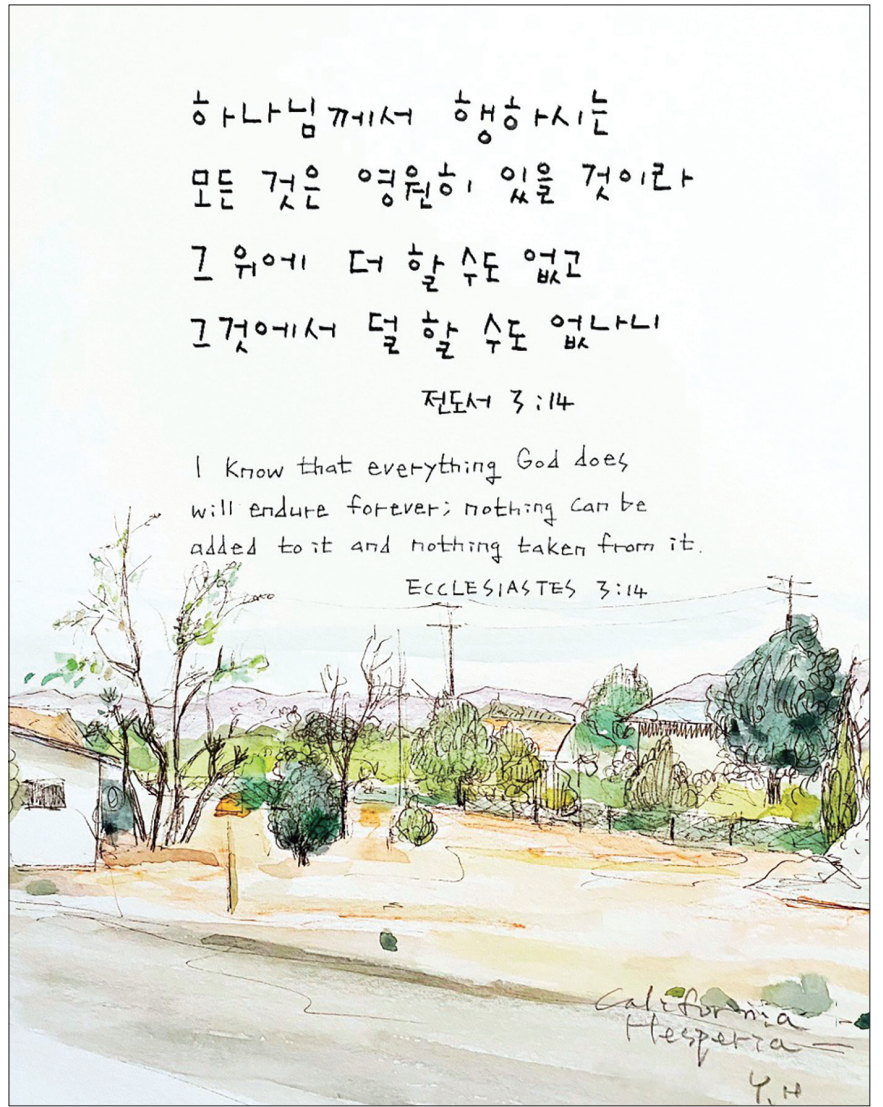
그 메이첸 박사의 저술이 2022년 다시 출판돼 소개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일입니다. 메이첸 박사의 사유를 읽으면서 함께 신학을 진행한다면, 좋은 신학 산물이 한국교회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신학 에세이입니다. 방송용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 신학생, 목회자 모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 사유 훈련에 좋은 저술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첸 박사에 대한 아쉬움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소천한 것입니다. 좋은 신학 전파를 위해서는 장수도 조건입니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교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1)

# <더 글로리>, 학교폭력과 크리스천 학생·학부모의 과제

폭력 얼룩진 학교현장 고발 복수극  
처절함, 시청자에 카타르시스 선사  
부모들과 교육자들 무관심이 문제  
부모, 신앙과 지식 교육 과제 남아

◆학교폭력과 사적제재: 한미일 각국에서 제  
작된 학교폭력 복수극

<더 글로리>는 지독한 학교폭력으로 인생  
의 밑바닥을 경험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18년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통해 가해  
자들에게 처절한 응징과 복수를 감행하는 서  
사를 주된 줄거리로 삼는 작품이다. 서사의  
치밀함이나 연출의 긴장감 측면에서 큰 호평  
을 받고 있지만,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짓  
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부자연스럽  
게 과장된 점은 작품성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해결사  
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징벌자로 변모해 사  
적 제재를 가하는 서사는 한때 일본의 소설과  
만화, 드라마 등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드라  
마 <원한해결사무소 리부트>(2009)의 에피소  
드 1편과 2편, 영화 <고백>(2010), 만화 <복수  
교실>(2013-2016)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이런 유형의 서사가 2010년대  
초반 인기를 끌자, 비슷한 서사의 작품들이  
국내에서도 발표되기 시작했다. 연상호 감독  
의 저예산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2010)을  
필두로 웹툰 포털 레진코믹스에서 연재된 <  
소년이여>(2014-2015), 네이버 웹툰의 <약  
한영웅>(2018-현재), 애니메이션 원작을 드  
라마로 옮긴 OCN의 <돼지의 왕>, 그리고 열  
마 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위에 언급한 작품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한 가지, 가해자들로 인해 바다까지 떨어진  
인생을 무기 삼아 그야말로 내일은 없는 듯  
자신의 삶 전체를 잔혹한 복수 하나에 담는  
처절함이 관객 혹은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카  
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가해자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돌  
변한다 해서, 그 삶에 평안과 위로가 돌아오  
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어둡고 암울한 정서  
를 원동력 삼아 나오는 계략과 폭력은 대단  
한 힘을 갖는다. 이 힘으로 주인공은 가해자  
들 또한 자신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의무교육이 시행  
되는 곳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있다. 미국도  
언론에서 '스쿨 불링'(school bullying) 문  
제가 자주 거론되고 관련 사건사고도 간간  
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2007년 한국인들  
을 충격에 빠뜨렸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  
사 사건의 주범 조승희 역시, 미국에서 중교  
등학교 시절 지속되는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학교폭력에 관한 대중  
문화 콘텐츠가 간간히 제작된다. 고전작으로  
는 1976년작 영화 <캐리>가 있고, 최근 작품  
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루머의 루  
머의 루머>(2017-2020)가 있다. 이 작품은  
미국 외판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학  
교폭력과 그에 관련된 뒷이야기를 전한다.

◆학교폭력과 교권붕괴: 학교폭력을 조장하  
는 부모들과 교사들의 무관심

그런데 자기 권리의 방어 노력을 존중하는  
미국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사적 제재를  
처리하는 법원의 정서가 한국이나 일본과는  
크게 다른 편이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참다  
못해 가해자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일은 미국  
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2012년 플로리다의 15세 학생  
이 지속된 폭력에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흥  
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카운티 법원은 가해자의 학교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스탠  
드 유어 그라운드' 법(Stand Your Ground  
Laws,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자신  
을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적용해 정  
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언했다.

한국에서는 2016년 매우 비슷한 사건이  
원주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가해자  
를 여러 차례 흥기로 찔렀으나, 가해자는 병  
원에서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피해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소년원  
에 장기 송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교육 시스템  
상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학교폭력 문  
제를 온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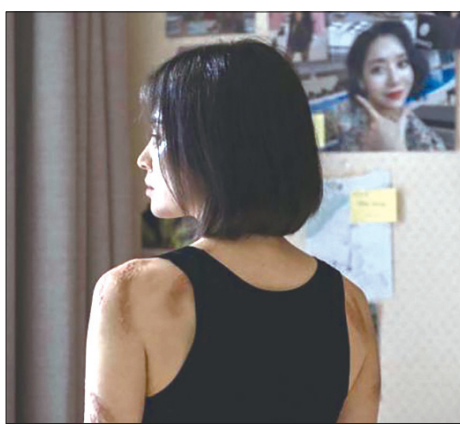
이는 의무교육 및 공교육 시스템에 필히  
수반되는 어두운 일면이다. 이에 많은 학교  
폭력 방지책들이 고안되었지만, 막상 교육  
현장에서 이런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교육계는 타 집단에 비해 도덕적 우  
위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  
어,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드러내  
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것이  
라는' 식으로 덮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강하  
다.

결국 학교폭력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부모들과 교육자들의 무관  
심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구실로  
자녀들을 학교와 학원에 방치하는 까닭에



학교폭력에 대한 원한과 사적 제재를 서사의 중심에 둔 드라마, <더 글로리>.



학교폭력의 기억과 흉터를 안고 살아가던 피해  
자의 치밀한 복수극, <더 글로리>.

아직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들과 청  
소년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리저리 미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고, 일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비극을 양산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육계의 권위가 떨어  
지면 떨어질수록 더 심화된다. 한국의 산업  
화 시기(1960-1970년대)를 되돌아보자. 당  
시는 교권이 대단히 강력해서 나름 학교폭력  
을 방지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했다.

당시 교권이 강력했던 이유는 군사부일체  
(君師父一體)라는 유교적 윤리지침이 아직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살아있던데다, 학교  
교육이 아니고서는 대학 입학에 필요한 지  
식을 얻을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을 높이 받드는 전통적인 유  
교적 윤리지침이 퇴색되어 가는데다 학원과  
인터넷 강의 등 대학 입학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방법이 학교 외에도 수없이 존재하  
는 현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에 적  
극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나 권한을 갖  
지 못할뿐더러, 교육계와 학부모들 역시 학  
교 교사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폭력 피해자와 그 가  
족들의 억울함과 고통만 배가되는 상황이 자  
주 발생한다.

기독교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양  
육에 있어 이 점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학생 전체로 볼 때 학교폭력 피해자의 수는  
소수지만, 그 소수에 자신의 자녀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는 입장이어도 큰 문  
제겠지만, 가해자 편에 서는 경우 더 큰 문  
제가 발생한다.

<더 글로리>는 분명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드라마의 가해자 집단에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딸 이사라(김희아라 분)가 속해 있  
는데, 고등학생 당시 주인공 문동은에게 물  
리적 폭력을 가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마약에 알코올  
에 빠져 사는 막장 행태를 보인다.

기독교 목회자 자녀에 대한 이 자극적 묘  
사는 한국 드라마 작가들과 감독들 전반에  
퍼져 있는 반기독교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지만, 기독교인 자녀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  
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  
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는 지켜볼 만한 여  
지가 존재한다.

현재의 공교육 현장은 과거 부모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교권  
은 약해졌고 학생들의 생활 자율권은 커졌으  
며, 이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제 예전처럼 학교가 아이들을 보내놓으  
면 그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 보기 어  
렵다.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어떻  
게든 자녀들을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입학시  
키려는 이유도 이런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신앙과 지식 양편 모두를 자녀들에게 교  
육시켜야 하는 기독교인 학부모들 입장에서  
는 이런 현실이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세속의 학교 교육 시스템에 자녀들의 삶을  
맡겨놓는 것은 한편으로는 편리하지만, 자칫  
무책임한 방임이 되어 자녀의 심성을 돌보지  
못하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  
수)



기독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행해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연)국비이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임업의 고문 변호사  
(전)제마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권협의회 이사장



**GRAND OPEN**

올코샵 그랜드 오픈

KIDOK SHOP 과 함께 합니다.



계묘년 토끼처럼 높이 경충! 날아오르는 한 해 되세요.

**CHOUETTE**  
**하나사면 하나공짜**  
 슈에뜨와 함께 새해를 출발하세요

~~400~~ **\$199**

**녹는 콜라겐 마스크팩**

슈에뜨에서 공개하는 첫번째 스페셜 아이템

**3초만에 흡수되는 녹는 마스크 패치로 콜라겐과 비타민 충전!**

부분별 패치

콜라겐 비타민 패치 이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Forehead	콜라겐 비타민 패치 눈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Eye	콜라겐 비타민 패치 볼타입 Collagen Vitamin Patch Cheek
--	--	--

**초미세 흡수력**  
3초만에 흡수되는 5만 나노 하이버 패치

**식물성 비타민 C**  
1,000ppm 함유

**수용성 콜라겐 99.9%**  
인체 콜라겐과 유사한 수용성 콜라겐

간편하게 피부관리 하세요!

**SNOOZY SOCKS**

**패션 자수양말 스누지 입점**

**스누지 5 패키지 자유선택**  
원하시는 디자인의 제품을 5개 골라보세요. 귀여운 패키지박스에 담아 드립니다.

**패션양말 스누지는 당신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완성치 아니라 이제 곧 시작입니다!

**Sulwhasoo**

**에센셜 컴포트 데일리 루틴 세트**  
ESSENTIAL COMFORT DAILY ROUTINE SET (각종 2종)

**BEST SELLER**

**10% OFF**  
~~130~~ **\$116.50**

**5개입 \$30**

**Rucca**  
화산재 석고 마스크팩  
Volcanic Ash Plaster Mask

**피부정화 부카 화산재**

**석고 마스크를 간편하게**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신축성이 좋은 어깨 밴드로 거드방어의 불편함 해소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등이 굽으면 거북목, 워킹장애, 허리디스크 등 모든 질병의 원인”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메세지  
**Message chocolate**

벨콜라데(Belcolade)는 벨기에왕실이 사랑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로 최고급 코코아 버터와 천연 바닐라를 사용해 깊은 풍미와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을 자랑합니다.

아티스트 초콜릿은 세계3대 초콜릿으로 꼽히는 벨기에의 프리미엄 초콜릿 벨콜라데(Belcolade)의 순수 100%코코아 버터만을 사용한 최상급 초콜릿입니다.

**도소매 전화상담**

**ALLKO 올코 SHOP**

**KIDOK SHOP**

**Undergent**

**RIVISTA**

**SNOOZY SOCKS**

**Sulwhasoo**

**CHARMZONE NC1**

**매장주소** 3055W.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Ch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www.kidokshop.com**

**도소매 문의 환영**